

광주시, ‘위생시설 개선’ 식품진흥기금 지원

1천만~3억원 한도 연 1~2% 저금리
음식문화 향상·식중독 예방 등 활용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치됐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

방사업,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에 활용된다. 용자사업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등록, 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설개선자금 한도액은 ▲식품안전관

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3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 업종 5,000만 원(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의 경우 1,000만 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 모범업소 육성자금 1,000만 원 등이다. 용자기간은 용자금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용자이율은 위생시설 개선자금은 연 2%,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및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은 연

1%다. 용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용자받을 은행(광주은행, 국민은행)에서 용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품안전과(062-613-

4363) 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이 영업장 시설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금 용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시,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내일부터...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대상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설 연휴로 관리여건이 취약한 시기에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예

정이다. 특별감시활동은 연휴 전과 연휴 기간으로 나눠 2단계로 추진하며, 연휴 전인 19일부터 2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면서 오염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단속도 한다. 또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발송하고, 악성

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우려 지역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파괴를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척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받도록 관리해 방침이다”며 “시민들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즉시 환경오염 신고상담전화(128)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실용화 속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어업 지식재산권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전한 기술은 ‘노지양식용 해삼양식장치’와 ‘수산식물 바이오가스로수장치’ 2건으로, 각각 (사)진도군전복협회와 ㈜링크웍스와 협약했다. 노지 양식용 해삼양식장치는 해삼의 먹이로 이용하는 부착 미세조류와 해삼의 서식공간을 증가시켜 양식 시설비와 노동력

을 절감하고 생산량을 높이는 장치다. (사)진도군전복협회는 소속 회원 35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후 시험양식을 할 계획이다. 수산식물 바이오가스로수장치는 수산식물이 광합성해 생산하는 장치다. 미세먼지 제거 및 이산화탄소 고정, 산소 배출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링크웍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올해 시제품 생산과 검증을 거쳐 본격적으로 상품화할 예정이

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처음 김종자(해풍 1호) 기술이전을 협약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전 특허 기술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과 산업체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방역물품지원금 접수하세요

소기업과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시행 첫 날인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지하민방위교 육장에서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방문한 자영업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대선 득표율,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

민주당 전남도당, 입후보 예정자 투표소 책임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대선 투표율과 득표율을 지방선거 입후보자 평가 등 공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전남도당 선대위는 17일 오후 무안 남악 도당 대회의실에서 공동선대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운동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당 선대위 공동위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자 투표소 책임제 실시, 지지율 높이기 캠페인, 2030 정책발표회 개최, 생활 밀착형 맞춤형 공약 발표 등의 선거운동 전략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 투표소 책임제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별로 대선 투표소의 투표율·득표율을 책임지도록 해 그 결과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또 90-90 플랜 가동(90% 투표율·90% 득표율), 소그룹별 릴레이 지지 선언, 전남지역 대선 공약 발표회 별도 실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교환했다. 김승남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전남의 뜨거운 이재명 후보 지지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며

“취합된 제안을 실천해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전남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김승남 상임선대위원장과 정가인(초당대 총학생회장)·임건우(순천대 총학생회장)·정영호(전 무안농민회 사무국장)·이영윤(전남의정회 사무총장)·이석형(전 함평군수) 등 공동선대위원장단과 김한중(도의회 의장)·이상훈(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총괄선대본부장, 김갑봉·류택열·송형근 종합상황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공동선대위원장과 고문, 공동선대본부장 27명을 추가 위촉했다. /정근산 기자

도, ‘첫만남이용권’ 접수 시작

울 출생아부터 200만원 지원

전남도는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접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

는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도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휴학·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포인트)는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2022년 인권단체협력사업’ 공모

시, 21일까지 기관·단체 모집

광주시는 시민 인권증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인 ‘인권단체협력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매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인권취약분야에 대해 민간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단체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기획공모와 일반공모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기획공모 분야는 ▲2020~2021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제안된 난민·사회적경제·장애인·이주민 분야 등의 시민인권 증진사업 ▲인권활동가의 역량강화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재) 및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 ▲인권취약계층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이다. 일반공모 분야는 인권교육,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익적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 중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만 가능하다. 접수는 21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111 광주광역시청 14층 민주인권과), 이메일(khs12070@korea.kr)을 통해 하면 된다. 광주시는 사업과제의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자체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시 민주인권과(062-613-2072)로 하면 된다. /오선우 기자

“따뜻한 사랑이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당신을 닮은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호남 유일의 고품격 초대형 전문 장례식장

금호지구 서광주역 옆 100M

대표전화 (062)527-1000

장례준비 및 절차에 대해 24시간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청지장례식장
CHEONJI funeral hall